

창직선택 요인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창직과정 프로그램을 수료한 대학생 대상

김은주*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양영석**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교수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 프로그램을 수료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선택의 요인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창직 프로그램 과정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요인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둘째, 창직 프로그램 과정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셋째, 창직 프로그램 과정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한다. 넷째, 직업선택요인과 창업의도에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실증분석한다.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직업선택요인 중 직업장래성은 창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경제성은 창업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장래성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효능감은 직업선택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년취업 아카데미 창직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성과창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요소 파악 및 적용에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창직, 창직프로그램, 직업, 직업선택, 직업선택요인, 취업, 창업, 창업교육, 자기효능감,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1.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눈앞에 둔 지금의 교육현장에서는 정치, 경제 및 사회의 급변하는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취업·창업교과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혜림·홍창남, 2016, 목영두·최명길, 2012). 교육을 통하여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창의성, 혁신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창의인재의 육성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직 개념이 주목받게 되었는데, 창직이란 자신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재능,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신규 일 자리를 창출 하는 것을 말한다. 창직 활동의 운영형태는

창직을 통한 창업, 창직을 통한 프리랜서, 창직을 통한 취업 등으로 구분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창업, 프리랜서, 취업과 차별화 된다. 창업을 취업의 한 형태로 보는 관점과 창직 교육과정을 통하여 창업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근거로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큰 범주에서 창업교육으로 볼 수 있다.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은 개인에게 창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장의 혁신을 만들어내며, 국가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성장을 이끌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Chrisman, et al., 1995, Shane & Venkataraman, 200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직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주목할 만한 성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창직과 창직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 tree0309@naver.com

** ytony@hanbat.ac.kr

II.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 프로그램을 수료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선택의 요인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직업선택 요인 중 적성과 흥미, 전공 일치성 등 내재적인 요인과 직업의 장래성, 직업의 경제성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구성하고 각 선택요인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창직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조사하고, 창직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해외 유사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창직 프로그램 과정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요인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한다.

셋째, 창직 프로그램 과정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한다.

넷째, 창직 프로그램 과정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한다.

위 제시한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년취업 아카데미 창직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성과창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요소파악 및 적용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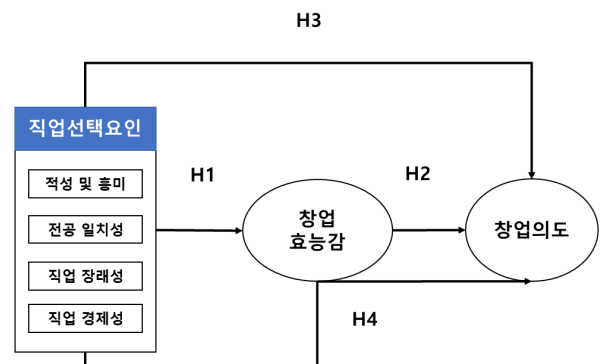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선택요인이 창업의지와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문학술지, 과거 문헌정보탐색, 인터넷 자료 활용 등을 통하여 이론적 모형 및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또한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각 요인들의 측정을 위한 설문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를 2019년 4월부터 약 1개월간 전국에 창직과정 운영 중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이 중 통계분석에 오류 및 부정확한 설문지를 배제하여 총 435부의 설문지를 토대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상관관계분석, 가설검증을 실시한 후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V. 연구모형 및 연구설계

4.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요인에 따라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검증을 위해 각 변수를 측정 하였다. 적성 및 흥미, 전공 일치성, 직업 장래성, 직업 경제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된 직업선택요인과 창업의도, 창업효능감을 아래 그림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첫 번째로 직업선택요인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을 설정하였고, 두 번째로 직업선택요인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모형을 설정하였다. 세 번째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증명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모델에 설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4.2. 연구설계

위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계하였다.

가설 1: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의 요인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의 요인 중 적성 및 흥미는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의 요인 중 전공일치성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의 요인 중 직업장래성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의 요인 중 직업경제성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의 요인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의 요인 중 적성 및 흥미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의 요인 중 전공일치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의 요인 중 직업장래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의 요인 중 직업경제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의 요인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4.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측정 변수를 정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인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직업선택요인	적성 및 흥미	직업이 자신이 잘할 수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와 일치하는 정도	박영원(2017) 정보연(2010) 정유진(2010)
	전공일치성	직업이 자신의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정도	
	직업장래성	직업이 미래에 발전가능성에 대한 정도	
	직업경제성	직업을 통해 미래에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창업효능감	학생들이 창업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	DeWitz & Walsh(2002)	
창업의도	대학생들이 미래에 창업하려는 욕구	Timmons & Spinelli(1999), Crant(1996), Ajzen(1991)	

V. 실증분석

5.1. 조사대상자의 특성

설문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52.4%, 여성이 47.6%로 나타나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이 24.4%, 3학년 15.2%, 4학년이 4.6% 순이었다. 응답자들의 학력을 분석해본 결과, 2~3년제 대학이 70.6%, 4년제 대학이 28.2%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보통이 45.5%, 만족 35.2%, 매우만족 12.2%, 불만족 4.8%, 매우 불만족 2.3%로 대체적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강에 대한 동기는 학점이수 48.0%, 미래를 위한 준비 18.6%, 창업에 대한 관심 14.5%, 주유추천 14.5%, 기타 4.4% 순으로 학교수업으로 학점에 대한 이수가 가장 큰 동기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횟수는 미참여 43.4%, 1회 참여 28.0%, 2회 참여 8.0%, 3회 참여 3.0%, 4회 이상 참여 17.5%로 창직과정 외의 창업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은 대체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5.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직업선택요인의 하위요인인 적성 및 흥미 3개 항목, 전공일치성 3항목, 직업장래성 5항목, 직업경제성 3항목을 채택하였고, 창업효능감은 8개 항목 중 6개 항목, 창업의도는 8개 항목 중 7개 항목을 채택하여 총 27항목 6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27개 설문항목에 대한 KMO(Kaiser-Meyer-Olkin)는 .863로 나타났다. 그리고 바르렛트(Bartlett)의 구성검정치가 .000(6974.820)로 유의하게 나타나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하여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적성 및 흥미 요인(.818), 전공일치성 요인(.867), 직업장래성 요인(.800), 직업경제성 요인(.841), 창업효능감 요인(.867), 창업의도 요인(.927)로 Cronbach's alpha 계수가 도출되어 신뢰도가 있는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항목		1	2	3	4	5	6	
창업의도	창업의도2	.879	.117	.103	.029	.094	.022	
	창업의도3	.850	.169	.036	.108	.146	.022	
	창업의도4	.838	.130	.043	.135	-.040	.008	
	창업의도1	.814	.095	-.044	.051	.060	.050	
	창업의도5	.811	.198	.038	.168	-.052	.063	
	창업의도6	.798	.209	-.045	-.160	.215	.009	
	창업의도7	.702	.076	-.071	-.267	.258	.020	
창업 효능감	효능감4	.100	.838	.094	.085	.038	-.006	
	효능감5	.108	.817	.099	.165	.061	.012	
	효능감3	.118	.794	.129	.091	.090	-.002	
	효능감2	.141	.762	.127	.027	.075	-.062	
	효능감6	.282	.664	.015	.049	.191	-.083	
	효능감1	.157	.624	-.012	-.110	.196	-.117	
직업 선택 요인	전공 일치 성	전공일치2	-.016	.093	.917	-.004	.111	-.050
		전공일치1	-.052	.078	.893	.065	.159	-.013
		전공일치3	.115	.201	.703	.120	.332	-.085
	적성 및 흥미	적성흥미2	-.018	.055	.034	.884	.074	.106
		적성흥미1	.018	.072	.026	.833	.158	.041
		적성흥미3	.094	.075	.103	.746	.164	-.035
	직업 장래 성	장래성4	.086	.221	.265	.197	.717	.049
		장래성5	.108	.196	.194	.219	.714	-.057
		장래성2	.182	.038	.032	-.018	.704	.069
		장래성3	.112	.225	.321	.400	.549	-.039
	직업 경제 성	경제성1	-.006	-.117	-.057	.016	-.050	.908
		경제성2	.015	-.054	.041	.171	-.017	.881
		경제성3	.137	-.026	-.087	-.079	.132	.800
고유값	4.919	3.805	2.658	2.566	2.558	2.310		
설명력(%)	18.21 8	14.09 4	9.845	9.505	9.473	8.556		
누적설명력(%)	18.21 8	32.31 2	42.15 6	51.66 1	61.13 4	69.69 0		
신뢰도 Cronbach's α	0.927	0.867	0.867	0.818	0.8	0.841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86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 6974.820, 자유도 351, 유의확률 0.000								

5.3. 가설검증

가설 1: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의 요인은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직업선택요인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VIF
창업 효능 감	상수	.248		7.671	.000		
	적성 및 흥미	.051	.047	.984	.326	.856	1.169
	전공일치성	.041	.075	1.448	.148	.721	1.386
	직업장래성	.061	.334	6.139	.000	.651	1.536
	직업경제성	.032	-.119	-2.688	.007	.980	1.020
R=.414, R ² =.171, 조정된 R ² =.164, F=22.211 p=.000, Durbin-Watson=1.825							

직업선택요인(적성 및 흥미, 전공일치성, 직업장래성, 직업경제성)이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2.211, p=.000),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결정계수(R²)은 .171로 나타났다. 직업선택요인 중 창업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업장래성(.334)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경제성(-.119)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장래성은 정(+)의 영향으로, 직업경제성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창업 의도	상수	1.086	.195		5.568	.000
	창업효능감	.472	.057	.373	8.352	.000
R=.373, R ² =.139, 조정된 R ² =.137, F=69.762 p=.000, Durbin-Watson=1.725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 보기 위해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69.762, p=.000),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결정계수(R²)은 .139로 나타났다.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373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의 요인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에 정리하였다.

<표 5> 직업선택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VIF
창업 의도	상수	.330		3.840	.000		
	적성 및 흥미	.067	-.030	-.611	.541	.856	1.169
	전공일치성	.054	-.095	-1.757	.080	.721	1.386
	직업장래성	.081	.341	5.996	.000	.651	1.536
	직업경제성	.042	.064	1.371	.171	.980	1.020
	R=.303, R ² =.092, 조정된 R ² =.084, F=10.896 p=.000, Durbin-Watson=1.682						

직업선택요인(적성 및 흥미, 전공일치성, 직업장래성, 직업경제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0.896, p=.000$),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는 .092로 나타났다. 직업선택요인 중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장래성(.341)으로 나타났으며, 적성 및 흥미, 전공 일치성, 직업경제성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의 요인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창업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 직업선택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창업효능감 매개효과 분석

매개 효과 검증 단계	독립변수	종속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된 베타 값	t값	p값	R제곱
			B	표준 오차				
1 단계	적성 및 흥미	창업 효능감	.050	.051	.047	.984	.326	.171
	전공일치성		.059	.041	.075	1.448	.148	
	직업장래성		.373	.061	.334	6.139	.000*	
	직업경제성		-.086	.032	-.119	-2.688	.007**	
2 단계	적성 및 흥미	창업 의도	-.041	.067	-.030	-.611	.541	.092
	전공일치성		-.096	.054	-.095	-1.757	.080	
	직업장래성		.483	.081	.341	5.996	.000*	
	직업경제성		.058	.042	.064	1.371	.171	
3 단계 (독립 변수)	적성 및 흥미	창업 의도	-.063	.064	-.046	-.976	.329	.176
	전공일치성		-.121	.052	-.120	-2.337	.020**	
	직업장래성		.324	.080	.229	4.072	.000*	
	직업경제성		.094	.040	.104	2.335	.020**	
3 단계 (매개 변수)	창업효능감		.425	.061	.336	7.013	.000*	

** $p < .05$, * $p < .01$

1단계, 2단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 직업선택요인 중 직업장래성,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장래성의 회귀계수가 .229, 창업효능감의 회귀계수는 .336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 독립변수의 효과가 3단계 독립변수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 값은 1단계에서 17.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2단계에는 9.2%, 그리고 3단계에서는 17.6%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정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가설1 검정결과 직업선택요인 중 직업 장래성이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은 지지되었으며, 나머지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직업에 대한 선택 시 현재의 요건 보다 미래의 발전 가능성 및 새로움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자기개발의 기회가 제공되는 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자신의 일에 대한 계획, 목표설정, 자신감 등의 창업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가설2 검정결과 기존에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지지되었다. 창업활동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준에 연구결과가 창직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가설3 검정결과 직업선택요인 중 직업장래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3은 지지되었으며, 나머지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직업에 대한 선택 시 현재의 요건 보다 미래의 발전 가능성 및 새로움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자기개발의 기회가 제공되는 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창업에 대한 준비, 미래 창업에 대한 계획, 창업교육에 대한 니즈 등의 창업의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넷째, 가설4 검정결과 직업선택요인 중 직업장래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창업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장래성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대한 선호와 인지도 높은 직업, 보람과 성취감, 새로운 지식의 습득, 자기개발의 기회 등으로 이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며, 매개효과가 확인된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그 영향이 높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직업선택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취업과 관련된 교육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호텔, 관광, 미용 등의 특정 전공분야에서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창직프로그램을 수료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선택요인과 창업효능감,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통계학적으로 연구하였다는 데에 학술적인 의미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연구에 활용 가능성 및 연구방향에 대한 제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직업선택요인이 하위요인인 적성 및 흥미, 전공일치성, 직업장래성, 직업경제성에 따라 창업효능감 및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상이하었던 결과를 토대로 창직프로그램 과정 설계 시 사전에 교육생에 대한 진단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직업선택요인에 따라 취업, 프리랜서, 창업 등의 자신에게 맞는 운영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상담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직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진단의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 했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창직프로그램 기획 시 창업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시사점을 갖는다. 현재 창직과정은 1인당 120만원의 창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팀 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마다 프로그램의 편성이 상이하거나 운영되어지는 수준도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과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질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획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가 창직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연구 참여대상자를 창직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는 16개 학교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에 필요성과 교육프로그램 이수학생들의 교육이해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년별, 전공별로 구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직업선택요인과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그 외의 다른 요인들에 대한 영향관계의 이론적 근거 도출을 통하여 창직프로그램의 성과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고혜림·홍창남(2016).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효과분석: D대 학교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지방교육경영*, 19(1), 67-87.
- 목영두·최명길(2012).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5(2), 833-857.
- 박영원(2017). *호텔관광경영학 전공 대학생의 직업선택 동기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 정보연(2010).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 정유진(2010). *식품양양학전공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직업선택요인과의 관계*, 석사 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Chrisman, J. J., Hynes, T. & Fraser, S.(1995). Faculty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the University of Calgar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4), 267-281.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DeWitz, S. J., & Walsh, W. B.(2002). Self-efficacy and college student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3), 315-326.
-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Timmons & Spinelli(1999).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